

原子力情報센터의 運營을



辛 基 祚

〈韓國電力技術(株) 顧問〉

I. 序 論

現代는 情報産業時代이다. 어떠한 産業을 막론하고 創出, 流通하는 最新關聯情報를 初期에 捕捉, 消化, 處理해야만 그 分野에서 落後됨을 免하며, 發展하는 社會에서 國際的으로 競爭力 있는 命脈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이다.

代替에너지의 寵兒로 등장한 原子力關聯産業도 이의 例外일 수는 없다.

II. 原子力情報센터의 必要性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資源이 크게 不足하여 需要의 대부분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고, 그것의 一環으로 原子力發電所建設計劃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어서 關聯産業의 劃期的인 發展을 期約하는 處地에서는 情報에 지대한 關心을 가져야 함은 重言을 要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原子力有關機關들 즉,

韓國電力公社를 위시해서 研究機關인 韓國에너지研究所, 機器製作會社인 韓國重工業, 其他 原子力學會, 原子力産業會議, 核燃料會社, 設計用役會社, 建設會社 등 各自 나름대로 原子力情報處理에 熱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機關들이 處理하는 情報는 自己分擔專門分野에 관한 情報에 置重하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指適하는 것은 이들 情報는 新度와 深度에 있어 完全하지는 못할 것이고 더욱이 弊病的이라고 할까, “他 機關에 對하여서는 秘密取扱을 하여 서로 補完, 選別해서 完全하고도 綜合的인 情報의 구실을 못하지 않나 하는 憂慮도 있다.

이와 같은 未盡한 點 등을 補完하여 原子力에 關한 限 迅速하고도 完全한 情報를 取扱하는 센터의 運營을 提案하는 바이다.

III. 原子力情報센터의 運營

이 센터를 運營하는 方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일 無難한 方法은 原子力産業會議에 附屬케 하여 運營하는 것이다.

原子力産業會議는 前記한 여러 原子力有關機關들이 會員社로 加入하여 있으며 여러 會員社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情報서비스를 擔當해야 하는 位置에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情報의 範圍를 몇가지로 分類하여 보면,

1. 原子力學術分野: 國內外 原子力學術會議資料의 蒐集·分析, 討論會開催 等
2. 原子力發電分野: 國內外 原子力發電所의 計劃, 設計, 建設, 運轉維持 등에 관한 情報, 특히 우리나라에 有益할 수 있는 特定情報
3. 核燃料週期分野: 國內外 核燃料週期에 관한 最新情報, 특히 放射性廢棄物의 處理, 處分に 관한 詳細한 傾向的 情報
4. 規格, 基準, 規制: 날로 새로워지는 各國의 技術基準, 各種 規格, 規制方向 등에 관한 情報

有益한 情報處理 結果는 原子力코뮤니티에 活氣와 自信과 勇氣를 注入하고 全體發展에 寄與하는 契期. 有益한 情報를 分散. 私 有化하기 보다는 綜合. 公有化함이 先進祖國을 이룩하는 捷徑.

5. 原子力製造分野: 國內外 原子力機器 製造産業에 관한 廣範하고도 深度있는 情報 등을 우선 對象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集中管理함으로써 人力, 經費의 分散, 重複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各 有關團體가 서로 緊密히 協調해야 하며, 센터에서는 모든 原子力 情報가 各각 把握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順序로서는 우선 國內情報부터 着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卑近한 例를 들면, 우리나라 原子力發電所의 建設, 運轉維持面에서 經驗한 여러가지 問題點들은 關聯者 以外에 對해 거의 露出되지 않고 있다. 保安上 問題까지를 舉論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나, 單純한 技術的인 問題라면 後日의 發展과 失手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Feed-Back 情報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將次 우리나라의 原子力發電所를 標準化하기 위해서는 外國의 資料를 參考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入力化하는 것이 더욱 必要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反核運動이란 것이 없다. Public Acceptance 問題로 苦惱하는 先進諸國과 比較해 볼때 얼마나 多幸스러운지 모른다. 이와 같은 現象은 과연 우리 國民들이 우리나라의 原子力事業은 安全性이 제대로 確保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安心 내지는 放心하고 있는 이유일까? 이렇게 解釋하고 지나가기에는 多少 不安한 感도 없지 않다.

그러기에 將次 닦쳐올지도 모르는 國民의 原子力에 對한 意識露出에 對備하는 뜻에서라도

이제부터 國內 모든 原子力關係 問題情報를 體系의이며 深度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海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情報를 迅速히 入手·處理해서, 우리나라의 原子力産業이 技術性·經濟性에서 뛰어날뿐 아니라 安全性 또한 完璧을 期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發展方向

이와 같이 다루어지는 原子力情報센터는 우리나라 原子力코뮤니티의 中心 廣場이 되도록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原子力産業에 關聯있는 政府部處, 電力會社, 研究機關, 學術團體, 製造會社, 設計用役會社, 建設會社들이 모두 參與하는 原子力코뮤니티의 만남의 廣場, 討論의 廣場, 協議의 廣場으로 活用되어야 한다.

이 廣場에서 最新의 有益한 情報處理結果는 原子力코뮤니티에 活氣와 自信과 勇氣를 注入하고 全體 發展에 寄與하는 契期가 되어주기 바란다. 有益한 情報를 分散, 私有化하기 보다는 綜合, 公有化함이 先進祖國을 이룩하는 捷徑일 것이다.

V. 結論

너무 概說的인 提案을 했다. 이의 實現에는 適切한 人材의 配置는 물론 施設, 情報네트워크의 構成 등 여러가지 難題가 많다.

巨額의 投資도 必要하다. 그러나 이들에 앞서 더욱 重要한 것은 有關機關들의 積極的인 參與인 것이다. 早速한 時日內에 現實化는 어렵겠지만, 이제부터 具體的인 計劃을 樹立하여 始作해 봄이 바람직하다.